창포호 주변, 물과 산이 만나 氣 생성되는 곳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31〉

■ 서해안시대의 거점, 무안

풍수지리의 고전인 청오경(靑烏經)에 '산이 다가오고 물이 돌아들면, 곧바로 귀하게 되고 재물이 풍족해진다(山來水回逼貴豊財)'고 했다. 또 도선국사의 십조통맥(十條通脈)에 모든 물이 명당에 모여드는 것은 혈(穴)이 맺히는 것을 뜻하는데, 물이 내조(來朝)하면 재물이 불어나고, 명당에 물이 모여들면 후복(厚福)한다고 했다.

그래서 장서(葬書)에서도 '풍수의 법은 물을 얻는 득수를 으뜸으로 여기고, 바람을 갈무리하는 장풍은 그 다음이다(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고 한다. 장풍국(藏風局)보다는 물이 모여드는 득수국(得水局)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남정맥이 승달산에서 서북으로 몸을 풀어 산진수회(山盡水廻)한 무안군현경면에 있는 창포호(菖蒲湖)와 그 주변의 형세를 살펴보면 "아하, 우리나라에 이런 땅도 있었구나!"하고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기업도시' 조성 예정지

무안읍과 청계면, 그리고 망운면의 물줄기가 마치 소쿠리처럼 생긴 지형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로 모여들고 그 안에 작은 섬 하나가 앙증맞게 앉아 있는데 그곳이 바로 창포호와 상대섬이다. 이곳에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거점 도시로서 무안 '기업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선국사의 십조통맥 정신편에 '도국(都局)이 넓어서 분별하기 어렵거든 사방을 둘러보고 으뜸 되는 정신(精神)하나 찾아보소. 푸른 방초(芳草) 가운데 백로(白鷺) 하나가 정신이요. 어두운 야삼경(夜三更)에 등불(燈火) 하나가 정신인 것처럼 정신은 다름 아니라 물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峰)하나가 바로 정신(精神)이라'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뜨거운 땅의 기운과 차가운 하늘의 기운이 서로 교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생기가 응결된 지점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도시가 들어설 무안 현경면 창포호와 그 주변 경관.

따라서 서부 무안의 정신, 즉 서부 무안에서 가장 큰 볼텍스 밸트(Voltexbelt)를 형성하고 있는 생기의 결혈처(結穴處)는 현경면이며, 현경면의 정신은 창포호와 그 주변이고, 창포호의 정신은 상대섬인 것이다.

창포호를 중심으로 경태방(庚兌方)에 망운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임감계(壬坎癸)와 갑묘을 진손사병오방으로 발달한 지형구조다. 즉 남향과 서향, 그리고 북향으로 건축물을 세워야하는 전형적인 동사택(東舍宅) 구조의 빼어난 형기적(形氣的) 국세(局勢)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생기방(生氣方)에서 물이 들어오고(震巽得), 진기(眞氣)가 소진된 물은 다시 흉방(丁未破)으로 빠져나가는 위치와 방향이 신묘(神妙)하게도 이기적(理氣的) 조건(條件)까지 겸비하고 있어 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한다.

전체적으로는 청룡(靑龍)이 짧고 강하게 선입(先入)하여 원국(垣局)을 감싸 안고, 후입(後入)해 크고 넓게 돌아오는 망운면, 운남면, 해제면, 지도읍, 임자면, 회도면 등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과, 크고 작은 섬들이 원국을 환포(環抱)하여 그림처럼 아름다운 백호(白虎)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수구(水口)에 둥둥 떠 있는 어대(魚袋)밖의 나성(羅星)이 곤신방(坤申方)에서 연운(煙雲)으로 피어오르고, 경태방(庚兌方)의 빼어난 봉우리들이 공읍(拱揖)하는 가운데 팔백연화(八百煙花) 삼천분대(三千粉黛)가 나열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격(砂格)은 부의 축적을 담보(擔保)하고, 수많은 귀인(貴人)과 빈객(賓客)의 내방(來訪)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흥왕(興旺)하는 운세가 오래오래 지속되어 여천동지(與天同地)한다는 풍수적 형국(形局)을 이루는 전제 조건들이기도 하다.

귀인들 내방 끊이지 않을 형세

다만 득수처(得水處)가 크게 서너 곳으로 나뉘어져 블록의 경계를 이루면서 창포호로 물이 모여들고 있어서, 세 개 정도의 지구지정, 또는 권역지정을 통해 힘과 세력의 균형이 삼분(三分)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 도시 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의 유치 또한 특정 '대기업' 하나 보다는, 두 서너 개의 '중견기업'을 먼저 유치하여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현경면 소재지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진산(鎭山)으로서의 현무봉(玄武峰) 즉 원국(垣局)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끌고 다스릴 주인봉(主人峰)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관상감(觀象監)의 풍수학 시험과목이었던 명산론(明山論)에 "산과 물이 모이면 음양이 융회(融會)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생기(生氣)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런 곳을 사람들은 좋은 땅, 즉 명당이라 한다(山水聚集則爲陰陽會, 會則爲生氣, 所謂吉也)"고 하였다. 그런 곳이 바로 무안 기업도시가 들어 설 창포호(菖蒲湖)와 그 주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 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영산강과 박인천

박인천씨 號, 영산강 별칭 '금호'

'江은 合하며어울린다'는 뜻 지녀

영산강은 대한민국 4대강으로 꼽힌다. 길이나 유역면적은 섬진강보다 못하지만, 더 넓은 들이 펼쳐진 때문이다. 유역에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에서도 그 지위는 엄연하다. 일찍이 옹관묘를 비롯하여, 견훤과 왕건의 쟁패, 조운량(漕運量), 시가문학, 의병활동에서 엿볼 수 있다.

영산강의 유로연장은 담양 가마골부터 무안 양호도까지 약 116㎞였다. 1980년대 하구둑이 설치된 뒤, 20㎞가 연장되어 '삼백리'에서 '삼백 오십리'가 되었다. 이른바 영산강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상류에 4개 댐과 하류의 감조(感潮)구간이 담수호로 변했다.

성형수술된 영산강은 홍수와 가뭄에는 미인이 되었지만, 수질은 나빠져 속은 타들어 갔다. 이제 먹는 물은 대부분 섬진강에서 길어오게 됐다. 주암과 동복댐에서 식수를 헌혈 받고 있다.

고려 때 흑산도 사람들이 이사와 영산현(榮山縣)을 꾸민데서 강 이름이 기원했다. 국가 세곡의 집산지인 영산창은 강명을 강화시켰다. 20세기 수운의 이점을 노려 영산포를 수탈기지로 삼은 일본인들은 유역권 전체에 '영산강'을 통용시켰다.

나주 옛 영산창터 근처 영산강. 멀리 보이는 산이 무등산이다.

본디 우리 가람은 구역의 특징에 따라 명칭을 달리했다. 영산강에도 본류만 하더라도 목포강, 남포강, 금강, 사호강, 곡강이 있었다. 현재 샛강에 극락강, 황룡강, 지석강, 고막강에 쓰이듯이.

과거 영산강은 하구에 '남해만(南海灣)'이란 지중해를 갖고 있었다. 영암군 시종면에 복원된 남해신사가 말해주고 있다. 수운(水運)시대 문화교역로 역할을 맡았다는 증거가 고고학 성과물에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문화권사업이 수립, 전개되고 있다.

근처에는 뱃길이 닫고 호수같이 양양한 물길이라 '호(湖)'가 붙은 곳이 많다. 예컨대 서호, 사호, 당호, 청호, 용호, 이호, 장호, 산호, 월호, 동호, 삼호, 맥호 등이다.

영산강은 곡창지대로 천·만석꾼 부자가 많았을 터이다. 근현대 갑부로는 나주 박재규·정업, 남악리 김성규·철진, 학파농장 현기봉·준호, 숭의농장 김상근, 나주 다시 이계선, 담양 국채웅 등이다.

오늘날 호남 거부라면 박인천(朴仁天·1901~1984)의 자손들이다. 금호(錦湖)그룹은 인천의 호를 딴 이름이다. 그는 나주 다시면 신석리 동산마을 197번지에서 박영숙의 3남으로 태어났다. 1937년 광주 불로동 113번지로 퇴거한 뒤, 1946년 황금동 87번지에서 택시 2대로 출발했다.

현재 항공회사를 포함 23개 계열사에 2만여 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자산규모가 13조원이 넘어서 재계 11위의 반열에 올랐다. 금호는 나주 일대를 흐르는 영산강 별칭이다. 강은 합(合)하며, 어울린다. 최근 이 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에 그 뜻을 담고 있다. 영산강처럼 너그러움도 같이 했으면 더 어울릴 것이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

■ 전라도 방언 (30)

"오늘은 날씨가 멩고롬허요"

동사·형용사의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파생어를 만드는 말의 요소를 접미사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그러한 파생어가 많거니와 방언에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중앙어의 '-스럽-'은 '복스럽다' '어른스럽다'처럼 대개 명사에 붙어 형용사를 만들지만, 전남방언에서는 이것이 '-시롭-'으로 쓰이는 한편 표준어에 비해 훨씬 생산적이다.

예컨대 '-하다'가 쓰일 자리에 '-시롭-'이 붙는 경우가 많다(미안시롭다, 어색시롭다, 귀찬시롭다). 이밖에 표준어의 '-롭-'에 대응한 경우도 있으며(까탈시롭다, 재미시롭다), '꾀가 많다'를 '꾀시롭다'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어근을 아예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시럽다, 몰쌍시롭다, 거판시롭다, 끄척시롭다, 궁상시롭다, 까시롭다'와 같은 낱말이 그렇다.

또 표준어에서는 조금 신맛이 나는 것을 '새곰하다/새콤하다, 시금하다/시큼하다'라고 하는데, 이 맛을 전남방언에서는 '새고롬허다, 시구룸허다'라고 한다. 이 말에서 접미사 '-고롬-/-구룸-'을 찾게 된다. "어찌 오늘은 날씨가 멩고롬허다/쎙고롬허다/쎙구룸허다"가 그렇다.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덩굴꽃마리

지치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

산지 풀밭이나 그늘진 곳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자란다.

키는 10~20㎝ 정도. 남부와 중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라규채 생태사진가